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 조화로운 미학

보성 우정미술관 소장품전 '위안의 마음 - 자연의 숨결'

장욱진·쿠사마 야요이 등 근현대 작가 예술적 대화 다층적 예술세계 탐구 경계 너머 새로운 풍경 조우

여로부터 자연을 주제로 한 산수화, 풍경화는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줬다.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며 내면 풍경을 탐구하는 작품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자연과 인간,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미학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오는 5월31일까지 보성 우정미술관(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제1,2전시실에서 열리는 2025년 소장품전 '위안의 마음 - 자연의 숨결'이다.

이번 전시는 근대부터 동시대에 이르는 동서양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자연의 숨결이 담긴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한다.

전시는 2개 파트로 구성됐다. 먼저 '내면의 풍경 - 초월적 상상력의 장'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국내외 16명 작가들의 서양화 작품을 한데 모아 전시한다.

서정적인 자연부터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꿈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작품들은 관객을 익숙한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내면의 깊은 심상으로 이끈다.

꿈과 현실이 얽힌 신비로운 세계를 그려낸 마르크 샤갈, 일본 전통 기법과 초현실적 상상력을 결합한 타로 야마모토, 반복적 패턴을 통해 무한과 자아를 탐구한 쿠사마 야요이 작품이 선보여진다.

또한 장욱진, 오승운, 이대원, 강종열 등 한국 작가들은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자연 풍경을 통해



쿠사마 야요이작 '무제'

동양적 정서를 새롭게 표현한다. 이밖에도 김원숙, 최윤기, 박현수, 김현아 등 동시대 작가들 작품을 통해 내면과 무의식의 풍경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 파트 '동양화의 재발견 -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미술관이 소장한 동양화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동양화 거장 10명의 작품을 전시한다.

동적인 에너지와 자유로운 필치로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은보 김기창 작품부터 전통 동양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감각과 사유의 세계를 구현한 신정 서세옥 작품, 풍부한 색채와 독창적 구성을 통해 동양화에 현대

적 감성을 불어넣은 유산 민경갑, 남천 송수남 등 한국 동양화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여백, 선, 색채를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구성한 작품들은 전통과 현대,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든다.

우정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자연의 풍경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층적 의미와 감정의 흐름을 조명한다"며 "동서양의 조화로운 예술적 대화를 통해 현실과 상상의 다층적 예술세계를 탐구하며 자연과 내면 그리고 그 경계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타로 야마모토작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삶과 내면의 리듬을 마주하다

컬리너리 초대전, 내달 4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선과 색이 서로 얽히고 스며들며 혼돈 속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단 순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선들의 역동성이 돋보인다. 여기에 순색과 보색 대비의 색면이 어우러지며 강렬한 느낌을 준다.

컬리너리 작가 초대전 'rhythm'이 다음달 4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2층 기획전실에서 열린다.

신안 출신인 컬리너리 작가는 국내 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는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에서 파편화된 선으로 이어진 인간의 신체 형상을 통해 내면을 찾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작품 속 명확한 형태를 찾아보기 힘든 사람의 모습은 남성과 여성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듯하다.

인간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감정구조를 결합, 교차시키는 이중적인 표현방식은 선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전시에서는 벽면을 한가득 채운 9m



'rhythm'

길이의 대형작품 등 총 10여점을 선보인다.

14일 오후 2시에는 작가의 드로잉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가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정금희 전남대 박물관장은 "해체와 움직임 속 구성을 이뤄내는 '선'은 생의 의지와 공허함, 과거

와 미래를 연결해준다"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삶과 내면의 리듬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전시 전경

천으로 펼쳐낸 여성 삶의 이야기

이연숙 '내가 살고...'展...3월21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

섬유 설치 작업을 통해 여성들의 시간을 담아낸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오는 3월21일까지 광주여성가족재단 허스토리 전시관에서 열리는 이연숙 작가의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전시다.

제7회 허스토리 기획전 공모전 수상작인 이번 전시에서는 한복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브릭 천을 소재로 한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유연하면서도 속이 비치는 실루엣 연출을 통해 공간을 유연하게 조성했다.

커튼 안에 들어가거나 작품 사이사이를 거닐면서 시간의 켄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장소와 기억을 재료로 조각·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는 전시를 통해 여성들의 삶 속 구전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지혜에 대해 다룬다.

특히 작가는 광주 전통시장 여성들의 삶을 구술 채록한 책을 참고했다. 이들이 몸으로 체득한 언어를 기계 자수를 통해 천에 수놓았다.

작가는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여성들,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한 우리네 어머니를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유언하게 조성했다."

“우리가 그간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자작나무숲, 그 목직의 울림

신선 작가 초대전, 내달 3일까지 충장22 갤러리

자작나무의 깊은 교감을 통해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펼쳐내고 있는 신선 작가 초대전이 열린다.

다음달 3일까지 충장22 갤러리에서 진행되는 '나의 연인 자작나무' 전시다.

전시에서는 자작나무의 순수함과 고독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슬픔과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2017년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만난 자작나무 숲은 작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당시 작가는 스탈린 정권 하에 중앙아시아로 추방된 카레 이스키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자연의 아름다움 또한 동시에 느꼈다. 이 경험은 작가를 강원도 원대리 자작나무 숲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깊은 교감을 통해 창작의 영감을 얻었다. 작가는 자작나무 숲속에서 느낀 변



'자작나무'

화무쌍한 감정을 화폭에 다이나믹하게 그려낸다. 한 그루 한 그루의 자작나무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담아내려 했다.

신선 작가는 "자작나무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령한 존재이자 늘 다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나의 연인"이라며 "자작나무 안에 숨겨진 역사적, 감정적 의미를 떠올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